

시카고 한인이 영양제 개발

영양학자 낸시 김 '롱제비맥스' 출시 아카이·인삼 등 30가지 절묘한 배합

시카고 한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 보조제가 출시를 앞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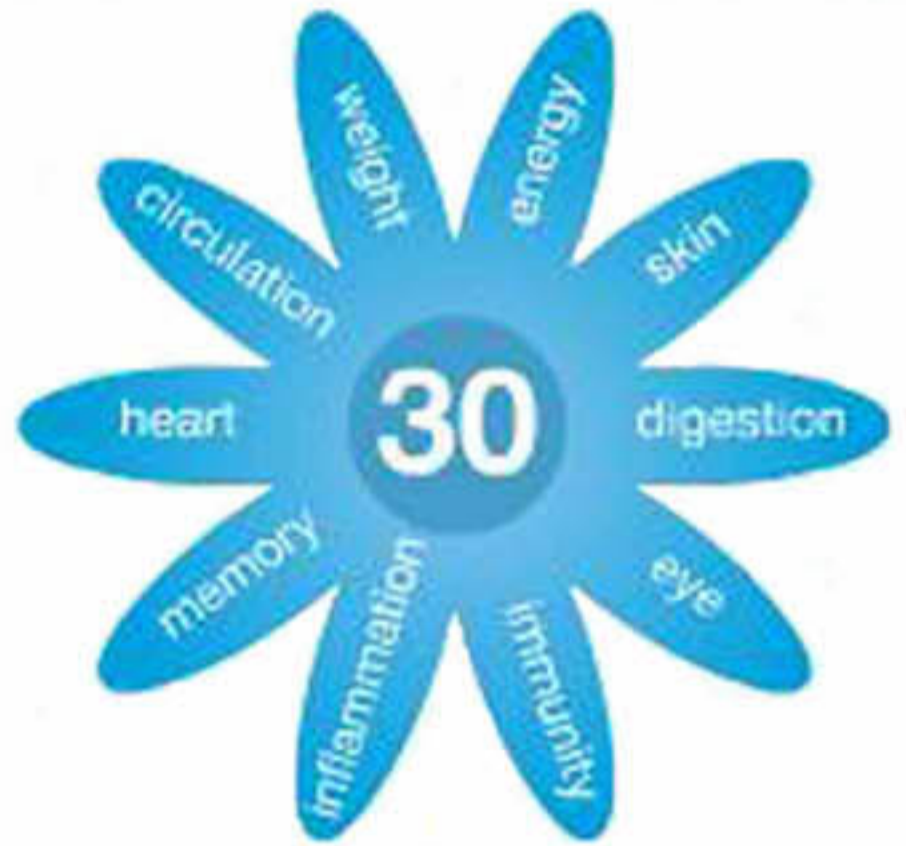
'롱제비맥스(Longevimax)'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화 억제 및 각종 질병을 예방해 보다 낫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영양보충제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보충, 체중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노화 방지를 비롯 소화능력 향상, 불면증 치료, 면역력 향상, 피부개선, 노안 및 각종 질병 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보충제이다.

FDA에서 인증하는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준수 업체에서 제작되는 롱제비맥스의 효과 비결은 30여 가지 성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효율적인 배합비율을 연구해 개발되었다는 것. 성분 중 아카이, 아마씨유, 콩, 프로바이오틱, 고추(캡사이신), 밀순, 보리, 마늘 등은 오프라 윈프리쇼에서 노화를 예방하는 슈퍼푸드에 선정되기도 한 것들이다.

시판전 어렵게 구해 롱제비맥스를 복용해봤다는 A모씨는 "항상 밤에 몇번씩 깨고 낮에는 졸기 일쑤였는데 낮에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그런지 이젠 밤에 잠도 잘오고 일어나면 개운하다. 에너지 보충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함유된 카페인이 제공하는 기억력 향상, 에너지 보충 등은 학생들에게도 좋다. 잠시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커피와는 달리 흔히 음식 등을 통해 얻는 카페인을 추출해 지속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

롱제비맥스의 출시 목적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저렴하고 효과적인 영양제를 보급하는 것이다. 120캡슐로 된 한달 분량이 34.95달러이다. 하루에 1.20달러인 풀이다. 제품을 개발한 낸시 김씨는 "시중에서 한가지, 또는 두가지 효과만 제공하는 제품들이 대부분인데 여러가지를 함께 복용하다 보면 성분들이 겹쳐 과다복용하게 된다"며 "이렇게 불필요하게 돈 낭비하고 과다한 성분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효과를 한곳에 담았다"고 말했다.

오는 7월 첫째주부터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출시, 이후 한인마켓에서도 선보일 예정인 롱제비맥스의 판매 수익은 일부 암 연구 및 커뮤니티 아웃리치에도 사용된다. 김 씨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보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다"



낸시김 (사진 위)씨가 개발한 영양제 롱제비맥스.

며 "건강해지면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법인데 서로서로 돕는 사회를 이루고 싶다"고 전했다.

김 씨는 시온회 김미애회장의 딸로 일리노이대(어바나 캠퍼스)에서 식품연구 및 영양학(Food Science and Human Nutrition) 학·석사를 받고 현재 기업 제품개발 고문, 기업 영양학 교육, 식습관 개선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제품 구입 문의=847-414-4677, 847-772-0781 (한국어)

정주연 기자

jjubie@koreadaily.com

